

월간 주요 이슈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2021. 09. 28.)

등산화의 기능성과 내구성, 제품에 따라 차이 있어

안전하고 편안한 산행에 필수 장비인 등산화(트레킹화)는 미끄럼 저항, 충격 흡수 등의 기능성과 튼튼한 정도인 내구성이 중요하다. 현재 다양한 브랜드에서 기능성과 내구성을 강조한 등산화를 판매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품질 및 안전성 정보는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은 소비자에게 객관적인 상품 선택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등산화 7개 제품을 대상으로 기능성, 내구성, 안전성 등을 시험·평가하였다.

안전성과 표시 사항은 모든 제품이 관련기준*에 적합했다. 충격흡수·추진력은 모든 제품이 우수했지만 미끄러지지 않는 정도, 발바닥의 압력, 겹창의 내마모성 등은 제품별로 성능에 차이가 있었다.

*안전기준준수 부속서1 가정용 섬유제품(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1-136호)



착용시험 예시

① 기능성

- (미끄럼저항) 4개 제품이 다른 제품에 쉽게 미끄러지지 않아 상대적으로 우수
- (발바닥압력) 2개 제품이 다른 제품에 비해 보행시 발바닥에 전달되는 압력이 낮아 착화감 우수
- (충격흡수, 방수성) 모든 제품 우수

② 내마모성

- (겉창 내마모성) 4개 제품이 다른 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
- (갑피, 안감 내마모성) 모든 제품 한국소비자원 권장품질기준 충족
- (내굴곡성) 모든 제품 충족
- (다이얼 끈 강도) 섬유 끈이 금속 끈에 비해 높음

③ 견뢰성 및 안전성

- (색상변화) 모든 제품 이상 없음
- (안전성, 표시사항) 모든 제품 관련 기준 적합, 시험대상 7개 중 5개 제품은 재활용 원료나 재생지를 사용